

기고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지켜보면서



퇴허자
광주 대각사주지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을 지켜보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 도저히 아니나 싶어 필을 들었다. 자고로 이런 경우 침묵하는 것은 말을 잘 못해서 짓는 죄업보다 더 큰 해악(害惡)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오 하여금 이런 쓴소리를 하게 하였다.

또 매회를 비롯한 사회적 오프니언 리더들 역시 뭔가 아닐 때는 누군가가 그만! 이라는 외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자리나는 우리의 2세대들은 아무래도 어른들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해외순방길에서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직접 방문하고, 각국 정상들과의 대화를 통해 동반성장의 국가경제와 외교·국방 등 상호 국익을 위한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내심 대통령의 활

발한 외교활동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며, 신뢰와 존경을 아낌없이 전하고 싶었다.

그런데 프랑스와 영국을 방문하면서 각각 불어와 영어로 대중연설을 하는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 여과 없이 보도되었다. 각 언론매체들은 오히려 우리의 여성대통령을 스타라도 만들려는 양 자랑스럽게 앞 다투어 마치 중계방송을 하듯 하였다.

과연 일국의 국가 원수가 자국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어로 대중연설을 하는 것을 그들은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을까? 대통령의 신분은 한 나라의 국위(國威)를 책임져야 할 국가원수로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자랑하는 우리에게는 과학적이고 빼어난 한국어가 있지 아니한가?

박 대통령의 외국어 연설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번 대통령을 수행한 고위 공직자들과 비서관들은 어떠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록(國祿)을 받는 공직자들의 역사식이 이 정도로 밖에 되지 않는 까닭은 오늘날 최고학부에서 역사에 대한 의식교육이 전무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소위 전문지식인들을 양산한다는 미명 아래 인문교육이 뒷전으로 밀리게 된 오늘날의 현실이 바로 탈문학적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차체에 한 마디를 덧붙인다면 도덕과 문

학, 역사교육 등 인문학 교육을 하루빨리 교육의 현장으로 되돌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인문학 교육은 모든 교육의 뿌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를 떠돌씩 하게 달고 있는 국가정보원 기록물 누출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는 지 짐작하게 한다. 여야 정치인들이 이에만 매달려 시급한 민생법안을 뒤로 미루고, 국익보다는 소속정당의 당리당락을 위해 어리석은 논쟁만을 일삼고 있다. 아예 국민적 관심사 어디에 있는지, 선거철이 아니면 거들떠 볼 생각조차 없는 것처럼 보인다.

기실 한국의 정치는 이나마 국민의 분노와 의지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한국정치는 국민의 기대치엔 너무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환갑의 연륜을 훨씬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주정치는 조선시대 영·정조 때의 사색당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느 외신기자의 말대로 영원히 쓰레기통속의 장미꽃에서 머물고 말 것인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삼가야 할 일은 무엇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해마다 한글날을 맞이할 때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되새기고, 찬탄하는 것은 그만큼 한글의 우수성과 역사적 의미가 세계적인 자랑거리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심지어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는 우리의 한글을 그들의 국어로 선정하고, 열심히 배우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던가.

다시 웃기를 여미고, 우리 조상님들의 가르침인 삼불치(三不恥)를 음미해 보자. 삼불치란 부끄러움의 3종 세트로서 첫째, 소상 앞에서 부끄럼이 없어야 하고 둘째, 자식들 앞에서 부끄럼이 없어야 하며 셋째, 거울 앞에서 부끄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깊이 가슴에 아로새길 말씀이다.

근자에 영문간판이 늘어나고, 여러 상품들의 이름에 외래문자 표기가 날로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며칠 전 제주 회현의 한 해바라기농원에서 해바라기씨로 만든 가정(과자류)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궁리 끝에 나는 ‘꼬빠라기’라는 이름을 만들어 보냈었다. 그 뜻은 ‘해바라기꽃’에서 상징화한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의 한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까지-!

社說

‘대재앙’ 필리핀 돕기운동에 모두 동참을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상상을 초월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을 돕기 위한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다. 결혼과 근로 등으로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필리핀인은 모두 24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태풍 피해지역은 생필품이 크게 부족해 약탈 전이 벌어질 정도로 심각하다는 소식이다. 시신 수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등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지역보다 인류애가 강하고, 가슴이 뜨거운 지역민들이 필리핀 난민 돕기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개인은 물론, 자치단체와 각급 기관들도 재앙에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 필리핀 난민 돕기를 통해 민주인권도시인 광주·전남 지역민의 인류애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17년 투병 끝에 숨진 의경의 못다이룬 한<恨>

“살아있는 데 감사했다. 이런 불행은 내 아들에게 끝나야 한다.” 시위 진압 중 당한 부상으로 17년간 병상에서 투병을 했던 아들, 그 아들을 끝내 떠나보낸 아버지의 가슴에는 화환이 가득했다. 지난 15일 아들을 가슴에 묻은 김정평(67)씨는 “아들은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희생됐지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아들 인원(37)씨는 전남지방경찰청 기동 9중대 소속 의경으로 근무하던 1996년 6월14일 조선대에서 시위를 저지하던 중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17년간 투병 끝에 숨을 거뒀다. 인원씨는 여수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 복무를 위해 의경에 지원했다고 한다. 인원씨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해양분야 연구원이 되기를 바랐지만 결국 물거품이 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씨는 스무 살 아들이 병상에서 중년의 문턱에 들어서면 세월이 흐르자 그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나누고 싶어 시집

을 펴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아들을 간병하며 느낀 부경(父情)을 ‘노래하는 부상으로 17년간 병상에서 투병을 했던 아들, 그 아들을 끝내 떠나보낸 아버지의 가슴에는 화환이 가득했다. 지난 15일 아들을 가슴에 묻은 김정평(67)씨는 “아들은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희생됐지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아들 인원(37)씨는 전남지방경찰청 기동 9중대 소속 의경으로 근무하던 1996년 6월14일 조선대에서 시위를 저지하던 중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17년간 투병 끝에 숨을 거뒀다. 인원씨는 여수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 복무를 위해 의경에 지원했다고 한다. 인원씨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해양분야 연구원이 되기를 바랐지만 결국 물거품이 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씨는 스무 살 아들이 병상에서 중년의 문턱에 들어서면 세월이 흐르자 그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나누고 싶어 시집

법조칼럼

외로움과 중독



조 영 성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

요즈음 흔히 “현대인은 외롭다”라고들 말한다. “외롭다”라는 단어의 국어사전 의미는 “홀로 되거나 의지할 곳이 없어 쓸쓸하다”고 정의되지만, 혼자서 인생을 살기 위해 이혼하는 사람들이나 행복한 가정이 있음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현대인이 딱히 홀로 되었다거나 의지할 곳이 없어 외로운 건 아닌 것 같다.

여하튼, 우리 현대인은 외로움을 느끼면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또는 달래기 위해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 그래서 찾은 것 중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담배 한 대를 피운다든지, 포장 마차에서 따뜻한 아묵 국물에 소주 한 잔을 한다든지 해서 외로운 자리를 채우는데, 만일 그 외로움을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로 채우는 순간 영원히 외로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대표적으로 대마의 경우 흥분과 억제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중독 수준에 이르면 공중에 뜨는 느낌과 함께 빠른 감정의 변화로 환각, 환청이 온다. 대마와 담배를 비교하기도 하지만, 대마 중독의 위험성은 환각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대마보다 환각 등 효과가 강력한 다른 마약류를 찾을 수 있어 단순히 중독되면 끊기 어려운 담배와 그 해악의 정도가 전혀 다르다. 그리고 필로폰의 경우 강력하게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고 강한 정신성 의존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의존성도 심화시켜 복용을 갑자기 멈추면 기면증, 폭식, 불안 등 정신적 장애가 수일에서 수주 간 지속되고 계속 복용하면 환각상태, 혈압상승 등이 일어나고 허탈 상태에 이르러 결국 혼수에 이른다. 결국 한 번 손을 대면 멈추기도 어렵고, 계속하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논란이 되는 소위 ‘게임중독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약과 게임을 함께 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에 공감이 가기도 한다.

한 남자가 구속되었다. 부모님도 계시고, 직장도 좋고, 재산도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고, 왜 마약류에 손댔는지 심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유는 외로움과 외로움을 느끼다가 우연히 외국출장에서 대마를 보고 호기심에 손을 대었다는 간단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 우연한 기회로 인해 시작한 대마의 유혹을 버리지 못해 중독되었고, 더욱 강력한 환각 작용이 있는 헤시시(대마 10배 효과)를 복용하다가 구속되었다.

한 여자가 구속되었다. 필로폰에 중독되

어 그냥 보기에요 안쓰러울 정도로 빼빼 말랐는데 이상하게도 소지품에 다이어트 약이 있었다. 그 여자는 구속되기 몇 달 전 우연히 평범하고 착한 회사를 만났고 필로폰을 끊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필로폰 중독을 이겨보려고 말라가면서도 병원에서 마약성분이 조금 함유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며 필로폰의 유혹을 견뎌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자의 작고 여린 몸으로 필로폰을 끊으려고 발버둥치던 모습을 상상하니 더욱더 안쓰럽게 보였다.

누구나 외로움을 한번쯤 겪어 보았겠지만 외로운 사람은 몸과 마음이 괴롭고, 그 괴로움이 계속 커지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 그외로움을 무엇인가로 채워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마약으로 채워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한번 마약으로 채워진 외로움은 절대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을 만큼 강력하고 결국 외로움과 관계없이 육체와 정신을 완전히 망치기 때문이다.

기고

‘교환이론’과 학교폭력



한 병 선
문학박사·교육평론가

‘교환이론’은 인간이 선택행위에 있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이익을 좇아 선택을 한다는 이론이다. 그 이익은 일대일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일대 다수의 이익일 수도 있다. 여기서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익은 다양하다. 지위나 명예, 사랑이나 애정과 같은 감정일 수도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학생들이 흔히 주요과목이라고 부르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시험에서 그만큼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다른 교사보다 담임의 말에 더 비중을 두는 것도 그에 따른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담임에게 잘못 보이면 생활기록부에 좋은 내용을 써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증거다.

성인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도시생활을 포기하고 귀향을 하거나 귀촌을 하는 것도 선택에 따른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도시생활의 편리함보다는 농촌생활의 분위기과 쾌적한 환경이 자신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정년퇴직까지 가지 않고 명예퇴직을 선택했다면 상식적 논리로 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터, 경제적 이익보다는 또 다른 가치에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교환행위가 모두 선택적 이익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다.

학교폭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경제적 가치는 아니지만 역시 교환적 가치가 발생한다. 예컨대 가해자는 피해자를 괴롭힘으로써 희열을 얻는다. 주변 친구들에게 소

영웅으로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 폭력집단이나 불량서클의 보스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이렇듯 학교폭력을 가했을 때 자신에게 ‘희열’, ‘소영웅’, ‘보스’와 같은 이익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힘의 우위일 수도, 가정결손의 스트레스 해소책일 수도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폭력적 기질일 수도 있다. 사회적 요인에 의한 폭력에 대한 둔감성이 원인일 수도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교칙에 의한 처벌보다도, 도덕적 비난보다도, 폭력행사에 따른 가치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결론은 나왔다. 학교폭력의 해결방법은 두 가지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교환이론의 측면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을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오히려 이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보다 더 큰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상하는 방법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육적 람을 이용한 방법이다. 바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전자가 강력한 제재를 수반하는 방법이라면, 후자는 보다 교육적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방법은 미시적인 방법이다. 거시적으로는 ‘스튜던트 오블리주(student oblige)’ 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스튜던트 오블리주는 학생이란 의미의 ‘스튜던트(student)’와 도덕적 의무를 나타내는 ‘오블리주(oblige)’를 합성한 것으로 필자의 조어(造語)다.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라면 스튜던트 오블리주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동체적 의무와 윤리를 강조한 것이다.

無 等 鼓

책상에서 국어사전이 사라진 게 몇년 된 것 같다. 신문사에 입사하고부터 항상 곁에 두고 있던 사전의 존재가 어느 순간 잊혀졌다.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인터넷 사전 보다는 종이 사전을 들추며 답을 찾곤 했는데 언제 책상에서 치워진 걸까.

미우라 시온의 장편 소설 ‘배를 엮다’를 읽다 사전(辭典)과 책 만드는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이 소설은 사전 만들기 에 평생을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다. 주인공 마지메는 ‘인내심 강하고, 꼼꼼한 작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어에 탐닉하면서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넓은 시야도 함께 가진 젊은이’를 찾던 선임자 눈에 들어 사전 만들기에 뛰어든다.

사전 제목은 ‘대도해’ (大渡海). 사전이란 ‘말의 바다를 건너는 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3만 개 표제어가 담긴 책을 출간하는 데는 꼬박 15년이 걸린다.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은 말을 바르게 뜻풀이 할 수 없기에, 사전 만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실천과 사고(思考)의 지치지 않는 반복”이라는 말은 마지메가 가슴에 새긴 조언이었다.

최근 일본 국어사전 ‘고지엔’을 펴낸 출판사 ‘이와나미 서점’ 오키모토 대표가 한국을 방문했다. ‘배를 엮다’의 저자가 자료 조사 차 출퇴근했던 곳이 바로 ‘이와나미 서점’이다. 올해 창립 100년을 맞은 이와나미 서점의 첫 작품은 나쓰메 세키의 ‘마음’. 100주년 기념작은 800명의 필자가, 10년간 3만8000명의 인물을 정리한 ‘세계인명대사전’과 ‘아리스토텔레스 전집’(20권)이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이런 책이 많이 팔리지 않을 것은 알지만 사회의 지적 기반을 다지고, 문화의 자력을 키우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한국의 출판사장은 어떤가. 글자의 출판사에서 펴낸 황석영의 ‘여울’을 펴낸 김경원(1952~)은 “말의 바다를 건너는 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3만 개 표제어가 담긴 책을 출간하는 데는 꼬박 15년이 걸린다.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은 말을 바르게 뜻풀이 할 수 없기에, 사전 만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실천과 사고(思考)의 지치지 않는 반복”이라는 말은 마지메가 가슴에 새긴 조언이었다.

‘半修 열풍’ 부르는 학벌만능주의 개선 시급하다

요즘 대학에는 반수(半修)라는 말이 유행한다. 재수나 삼수도 아닌 반수가 무엇일까. 스펙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대학에 입학하고도 더 나은 학벌 기록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대입을 준비하는 반수생들이 바로 그들이다.

우리집 애도 모 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날 무렵부터 소위 반수를 한다며 새로 대입시 준비를 했다. 서울에

있는 대학만 나왔다고 취업이 잘되는 것도 아니라며 더 나은 대학에 가겠다고 공부한다는 메아이를 들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입시를 치른 것이다.

하지만 웬만한 대학에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노력해 그만큼 충분한 보상과 대가가 부여되는 사회라면 아이들이 이렇게 더 나은 대학으로 갈려고 발버둥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참 안타깝고 씁쓸

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나도 부모로서 처음에는 반수를 만류했다. 그러나 아이는 학벌위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며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이는 내게 인터넷을 펼쳐보여줬다. 그 인터넷 입시 커뮤니티에 보니 수많은 반수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연젠가 모 유명 입시학원이 조사를 해보니 국내 대학생의 약 43%가 반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반수 희망자들을 타깃으로 학원가에서는

반수생 모집에 열을 올릴 정도라고 하니 우리집 아이의 이런 고집이 그냥 개인적인 욕심만은 아닌 듯 해서 결국 나도 현실을 인정하고 아이의 뒤를 도와주었던 것이다.

이 모두 학벌 만능사회가 주는 페단 아닌 페단이다. 어느 대학을 나왔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적성에 맞게 진로를 선택하고, 그것으로서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무조건 명문대학만 가려고 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반수 열풍도 잠재우고...

▲문성희·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교마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프로젝트팀 2200-55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주요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